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느긋하게 상대를 기다려온 삼성과 가을야구 첫 관문부터 출발한 두산이 9일부터 PO에서 격돌한다. 2015년 KS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두 팀의 가을전쟁이다. 삼성은 막강 선발진, 두산은 기세를 탄 타선이 강점으로 꼽힌다. 올해 정규시즌 16차례 맞대결에선 두산이 9승7패로 근소하게 앞섰다. 스포츠동아DB

삼성 선발 강하잖아 vs 두산 타격감 무서워

이승엽- -안경현

두산-삼성 오늘부터 플레이오프
이승엽-안경현 위원 시리즈 전망

2선승제 축소·대구 작은 구장 변수
삼성 전력 우세 속 두산 기세 주목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시리즈(KS) 진출을 놓고 6년 만에 다시 포스트시즌(PS) 무대에서 맞붙는다. 2015년 KS가 마지막 PS 맞대결이었던 두 팀이 9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올해 플레이오프(PO·3전2승제) 1차전을 치른다. 두산은 와일드카드(WC) 결정전과 준PO 혈전을 거쳐 PO에 올랐고,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친 삼성은 여유 있게 상대팀을 기다렸다.

6년 만에 성사된 두 팀의 가을야구 맞대결을 앞두고 각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인 이승엽(45), 안경현(51) SBS스포츠 해설위원에게 PO 전망을 물었다. 두 위원 모두 삼성의 우세를 점친 가운데 각기 다른 포인트를 짚었다.

이승엽

안경현

●이승엽 위원 "선발 경쟁에서 삼성이 우위"

2010년대 삼성 왕조의 중심이었던 이 위원은 "선발 경쟁에서 삼성이 앞선다. 두산은 외국인투수를 모두 기용할 수 없지만, 삼성은 데이비드 뷰캐넌이 1차전부터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은 준PO까지 불펜 소모도 많았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타선에선 "박해민, 구자욱, 오재일로 이어지는 좌타라인이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였다. 베테랑 강민호의 장타력이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라이온즈파크 개장 이래 첫 가을야구다. 홈에서 시리즈를 시작한다는 게 삼성에는 상당한 이점이다. 삼성 팬들의 압도적 응원을 받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현 위원 "타격감 상승세, 작은 구장"

1995년과 2001년 KS 우승의 주역인 안 위원은 두산의 열세를 부인하진 않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전2승제로 축소된 시리즈를 하나의 변수로 꼽았다. 안 위원은 "삼성의 전력이 유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3전2승제 변수가 있다. 대구에서 열리는 시리즈 첫 경기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휴식기간이 조금 애매했다. 경기감각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다고 휴식을 길게 취해 체력을 온전히 충전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두산의 긍정적 부분에 대해선 "타선이 상승세에 올랐다. 더군다나 넓은 잠실구장을 쓰다가 상대적으로 작은 라이온즈파크로 간다. 이 점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꼽았다. 또 "두산은 지금 손해 볼 게 없다. 떨어져도 칭찬을 받을 팀이다. 일반적인 시즌에는 와일드카드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 포스트시즌 관련기사 2·3·4면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황희찬 "EPL 황소처럼 최고의 퍼포먼스 보여줄 것"

11일 UAE와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도전하는 축구국가대표팀이 아랍에미리트(UAE·11일 20시 고양종합운동장)~이라크(17일 0시·카타르 도하)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A조) 5·6차전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 승점 8(2승2무)로 이란(승점 10)에 이어 A조 2위인 한국은 11월에 본선행 분위기를 확실히 다진다는 의지다.

그러나 주축 공격수 황의조(29·보르도)가 소속팀에서 당한 부상의 여파로 대표팀 최전방에 나설 수 없다. 대안으로 떠오른 선수는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턴의 주전 자리를 꿰찬 황희찬(25)이다. 리그 8경기에서 4골을 뽑아내며 '늑대군단'의 킬러로 떠올랐다.

8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으로 소집된 황희찬은 "(황)의조 형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쉽지만 좋은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나도 어느 자리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속팀에서와 달리 대표팀에선 2% 부족했다. 저돌적인 측면돌파로 공격에 기여하고 있지만, 좀처럼 골은 터지지 않고 있다. 황의조가 빠져 역할이 커진 만큼 골사냥을 기대할 만하지만, 황희찬은 승리만 바라본다. "득점이 꼭 필요하지만,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며 "좋은 결과를 위해,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황희찬

여러 어려움에도 2년여만의 100% 유관중 경기 개최로 선수들은 큰 힘을 받을 수 있다. 황희찬은 "(100% 유관중 경기는) 선수들에게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파주 |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도시가스 온런대회' 19일부터 온라인레이스

자선러닝대회로 열리는 '도시가스 온런(溫RUN) 대회'가 19일부터 4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인증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넥워머, 러닝힙색, 기념 메달 등이 주어진다.

즐겁게 온(ON)런 달리고
푸근하게 온(溫)정 나누고

오늘부터 참가자 5000명 선착순 모집
러닝힙색·넥워머 등 7종 기념품 풍성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도시가스 온런(溫RUN) 대회'가 19일부터 4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온라인 대회는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참가자가 원하는 코스를 정해 3km 이상 자유롭게 걷고 달린 뒤 모바일 러닝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기록과 거리를 측정해 공식 이메일이나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참가비 전액을 기부해 발달장애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자발적 자립 기반인 푸르메소셜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참가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500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러닝힙색, 넥워머, 논슬립 헤어밴드, 스포츠 양말, 레저 타월,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레이스 패키지와 함께 완주를 기념하는 피니셔 메달이 주어진다. 참가비는 2만 원이다.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도 마련했다. 일일 러닝왕, 에너지업 포즈 콘테스트, 쓰담런, 러닝메이트와 1+1 달리기, 챌린지 10K 등 다양한 참여 경품이 준비돼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송재호 회장은 "연말 기부 활성화에 동참하는 생활체육 이벤트를 처음 개최하게 됐다. 온런 대회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따뜻한 나눔 레이스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참가신청: www.citygasonrun.com
(검색창에 '시티가스온런')
●참가접수: 9일(화)부터 선착순 5000명 모집
●대회인증기간: 11월 19일(금)~11월 22일(월)
●문의: 02-361-1425~7
●공식 인스타그램: @citygasonrun
●인증방법: 3km 이상 걷거나 달린 후
citygasonrun@gmail.com에서 인증
●참가비: 2만 원

주최 : 한국도시가스협회 동아일보
기부처 : 푸르메재단 Purme Foundation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